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연령회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祝 세례식

세례식	12월 3일(토) 오후 2시
-----	-----------------

※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알 림

- 다음 주(11월 27일)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11월 27일(일, 대림 제1주일)부터 성체조배실을 개방합니다.
- 매월 첫 금요일(12월 2일) 저녁 미사 후 성체 강복식이 있습니다.
- 매주 목요일 10시 40분 시니어 아카데미가 강당에서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회 의

- 사목위원 워크샵
- 일 시 : 11월 26일(토), 9시 50분
- 장 소 : 본 당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울뜨레아	11월 20일(일), 11:40	강 당
3Cu-사랑의 모후	11월 20일(일), 13:00	강 당
성체분배자회	11월 27일(일), 교중 미사 후	성체 조배실

● 대림시기 준비

- 대림절 신앙실천 봉투(대림저금통), 판공성사표, 달력 등은 구역·반장님을 통해서 배부합니다.
- 5지역(구역외) 신자는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위령봉사회 회원 모집

- 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 및 봉사에 관심 있는 신자분들을 모집합니다.
- 월례 모임 : 매월 첫 일요일 11시 40분, 강당
- 총 무 :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10월 31일 현재 ₩18,300,000납부되었습니다.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11/27)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24구역	청 소	6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1월 9일 ~ 11월 15일)

교 무 금		5,605,000원
주일헌금		4,436,000원
감사헌금	서만심 6만원 오정숙 5만원 김보람 5만원 김○○ 5만원 전다연10만원 임정선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1/20	이인옥	오성환 김영균	윤상기 김성해
11/27	권태희	신종구 최상림	김덕영 김보금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1/20	최승일	박승환	김영배 황태영	최창열
11/27	최영만	박용환	김광수 김영배	김인기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231. 많은 경우에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길들을 협상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평화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과정들은, 무엇보다도 민족들이 공동으로 일구어내는 변화들로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개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일상생활 방식에 따라 효과적인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서재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나의 창의적인 계획을 통하여 역사의 새로운 한 장, 희망과 평화와 화해로 충만한 한 장을 써 내려가는 데에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평화의 ‘건축’이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제도들이 각기 고유한 역량에 따라 기여하는 건축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예술’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가 동참하는 예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는 평화의 다양한 과정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평화를 구축하고 복수보다는 이성을 우선시하며 정치와 법률이 세심한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방식들이 보통 사람들의 참여를 간과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선의의 정치 또는 경제 집단들 사이에 제도적 합의와 규범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흔히 주목받지 못하였던 분야들의 경험을 우리의 평화 협상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공동체들 스스로가 공동체 기억의 역사를 다채롭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32. 한 국가의 사회적 평화 건설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모든 이의 노력이 필요한 끊임 없는 과업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국가의 단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또한 평화로운 공존에 도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걸림돌과 어려움과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을지라도 만남의 문화 증진을 위하여 꾸준히 싸워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행동의 중심에 인간과 그 존귀한 존엄과 공동선에 대한 존중이 자리해야 합니다. 이 노력은 우리가 오직 개별적이고 순간적인 이익만 추구하거나 보복하려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 줍니다.” 폭력적인 대중 시위는 그 어느 편에도 해결책을 찾는 데에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콜롬비아 주교들이 잘 언급하였듯이, “시민의 시위”를 부추길 때 “그 시작과 목표가 늘 명확히 밝혀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특정 형태의 정치적 조작이 있거나 특별한 이익을 위한 전용이 있는 것입니다.”